

주화 훼손
처벌 강화



2016년 3월 29일
한국은행법 개정

한국은행법 개정으로
주화 훼손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.



한국은행
캠페인

우리 돈
우리가 지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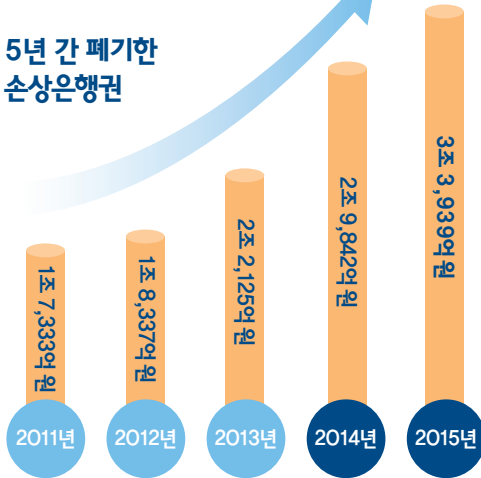
주고받는 깨끗한 돈
오고가는 밝은 미소



돈 깨끗이 쓰기

새 돈을 찾기 전에,
깨끗한 돈이 먼저입니다.

5년 간 폐기한
손상은행권



“ 돈 깨끗이 쓰기,
365일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.”

언제나
새돈처럼



동전 다시 쓰기



동전을
새로 만드는 비용
‘연간 600억 원’

동전을 다시 사용할수록
화폐 제조비용이 줄어듭니다.

동전 다시 쓰기를 실천해 보세요!

- 휴대하면서 소액 결제에 사용하세요.
- 금융기관에 예금하거나 은행권으로 교환하세요.
- 사회복지단체의 ‘사랑의 동전 모금함’에 기부하세요.